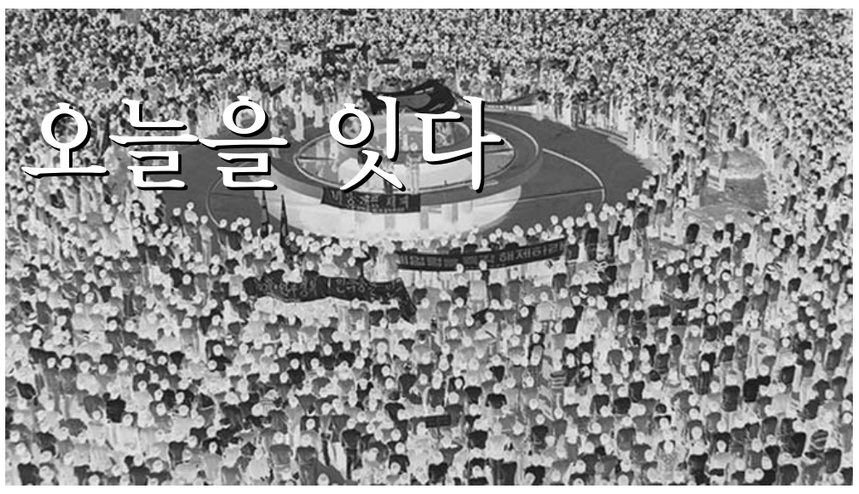
광주극장, 오월과 오늘을 잇다

5·18광주민주항쟁 46주년을 맞아 광주극장이 한국 현대사의 상처와 연대, 민주주의의 의미를 돌아보는 특별상영을 마련한다.
제주4·3부터 5·18, 남태령과 비상계엄까지 시대의 장면들을 다시 마주하며, 역사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되짚는 자리다.


'둥글고 둥글게' 스틸

31일까지 5·18 46주년 특별상영회
관객과의 대화, 추도식 연계 행사도

광주극장은 오는 31일까지 '5·18광주민주항쟁 46주년 특별상영'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상영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먼저 2026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된 '남태령'이 20일 정식 개봉에 앞서 18일 오후 7시30분 스페셜 시사회로 광주 관객을 찾는다. 김현지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남태령이라는 공간에 모인 시민들의 기록과 목소리를 디지털 아카이브 형식으로 엮어냈다. 현장과 X(트위터)를 오가는 시민 연대의 풍경을 따라가며 동시대 집단 경험을 담아낸다. 상영 후에는 한채원 독립서점 이서점 대표의 진행으로 김 감독과 대화의 시간이 열린다.

'남태령' 스틸

20일에는 '1026: 새로운 세상을 위한' 특별상영회도 마련된다. 최위안 감독 작품으로, 1979년 10·26 사건을 중심으로 김재규와 박정희의 관계를 따라가며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장면들을 조망한다. 영화 상영 전에는 함세웅 신부 집전으로 김재규 장군 46주기 추도식이 진행되며, 상영 후에는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23일에는 '꽃잎'과 '둥글고 둥글게'가 연속 상영된다. 장선우 감독의 '꽃잎'은 5·18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한 소녀의 삶을 통해 개인의 상처와 사회 폭력을 그린 작품이다. 개봉 30주년을 맞아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다시 관객과 만난다.

이어 상영되는 '둥글고 둥글게'는 한국영상자료원이 기획하고 장민승이 연출, 정재일이 음악을 맡은 논픽션 시청각 프로젝트다. 5·18민주항쟁부터 1988 서울올림픽까지의 시간을 아카이브 영상과 사운드로 재구성하며 한국 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이날 상영 후에는 전찬일 영화평론가의 진행으로 장선우 감독과 장민승 감독이 참석하는 GV가 열린다.

이밖에도 제주4·3의 기억을 다룬 '내 이름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기록을 담은 '란 12.3', 팔레스타인 소녀 힌드 라자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힌드의 목소리' 등도 5월 말까지 상영을 이어간다.

한편 광주극장은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할인도 적용한다. 관람료는 성인 4천원, 청소년 3천원, 시니어와 CMS 후원회원은 1천원이다. 상영작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 확인. /최명진 기자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가가호호' 본격 운영

동구문화관광재단, 참여 가족 모집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가가호호'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은 '2026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 5개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집 이야기 박물관'과 '동굴동굴 예술탐험대'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가호호 사업은 지역 문화·생태 자원을 예술교육과 연결한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우리집 이야기 박물관'은 조부모·부모·손주가 함께 참여하는 3세대 가족 대상 프로그램이다. 가족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예술로 기록하며 세대 간 이해와 공감,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굴동굴 예술탐험대'는 초등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무등산과 광주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등 동구의 자연·문화 공간을 탐방하며 예술적 감각과 창의적 표현을 확장하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비기팽(구사), 궐부교여 위여길(육오), 자천우지길(상구)"

〈제59강〉 14. 화천대유(火天大有) 下

대유괘 구사의 효사는 '비기팽, 무구'(匪其彭, 无咎)이다. 즉 '지나치게 성대하게 팽팽하게 하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사효는 음위에 양효로 육오 군주와 친비 근접하고 있다. 유순덕(柔順德)한 군주가 친비한 구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 더욱이 풍요로운 대유의 시기에 군주의 위임을 받은 구사는 월권할 수 있고 건장하고 위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이를 경계한 말이 비기팽(匪其彭)이다. 이제 그만 팽창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허물을 면하는 방책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만 확대하고 스스로 억제하며 자제하라'는 것이다.

효사에서 '팽'(彭)은 '부풀어 올라 팽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너무 강하고 성하니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억제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구사는 육오의 군(君)의 측근에 있는 양효(陽爻)이지만 음위에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가 스스로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제해도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재물의 유혹이 있어 재난을 당하기 쉽다. 그러므로 스스로 억제하고 자신을 굳게 지켜 재난을 피하는 총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팽비(彭匪)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말아야 하고 육오 군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아야 한다.

상전(象傳)에서는 구사의 효가 세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아 인군에 봉사한다고 해서 '명변철야'(明辯哲也)라 해 현명하게 잘 판별해서 자기가 나아가야 하는 도(道)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 아래에 있는 총리는 권력을 너무 남용하지 말고 구사의 위치에 있는 사업가는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해서는 안된다. 이때는 좋은 운이기는 하지만 너무 성대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 의심을 받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게 방비(防備)를 잘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자기의 주관을 꺾지는 않는다.

점사에서 구사〈〈※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사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직분을 편히 여겨야 능멸하고 핍박 받는 화를 면한다(則安職 免凌逼之禍/즉안직 면릉핍지화/逼핍박할 핍). 선비는 때를 기다려야 빼앗기고 고치는 걱정을 면한다(待時 免褫革之虞/대시 면치혁지우). 서속은 상례를 잘 지켜 헐뜯어 상하게 되는 해를 면하며(守常 免毁傷之害/수상 면훼상지해), 혹은 안질이 있으니 너무 밝으면 손이 되는 연고다(或有眼疾 明則損故也/혹유안질 명즉손고야)〉〉를 얻으면, 주변과 윗사람으로부터 시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력이나 사업 등은 그만 확대하고 멈춰야 하며 겸손해야 할 때이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너무 성대해지니 주위의 모함을 받는 경우와 같다.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으나 뇌물 유혹이 있고 작은 이익을 탐해 실수, 원한을 사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은 현상 유지해야 하고 지망과 신규로 서두르는 일은 불가하나 점진적 추진은 가능하다. 권세로 일을 이루려 해서는 안되고 겸손과 정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혼인 상대는 재산을 목적으로 접근해 성사(成事)는 되나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잉태는 태아가 너무 크나 큰 문제는 없다. 기다리는 사람은 늦게 올 기미가 있고 가출인은 좀처럼 돌아오지는 않으나 무사하며, 분실물은 큰 물건 속에 숨겨져 있다. 병은 가슴에서 등에 걸친 동통(疼痛), 호흡기 장애, 복막 등의 고열을 동반하고 병근(病根)이 깊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모인의 면접시험 합격 여하'에서 '대유지대축(大有之大畜) 구사동'을 얻고 점고하기를, '하늘 위에 태양이 뚝 떠 천하를 소유하는 상으로 운이 왕성하다. 이제 구사를 얻어 음위에 양효가 있으니 기력은 미약한데 지나치게 나아가려고만 해 효사에 이제 그만 팽창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匪其彭 无咎)고 했다. 면접에서 지나치게 자기 이론을 주장하면 합격은 어려울 것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겸손하게 처신하면 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주장과 이론으로 그만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거금(巨金)의 분실 행방 여하'를 문점하자 서죽을 들어 '대유괘 구사'를 얻은 '실점예'에서 '대유괘는 크게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니 아직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변괘가 간산으로 집안에 있다. 구사는 상괘이고 비(匪)는 대나무로 만든 상자의 상이 되니 이층에서 상자 속을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리해 찾았다.

'분실물 수표의 행방 여하'를 물어 역시 대유괘 구사를 얻은 '실점예'에서 '대유는 크게 소유하다는 뜻이다. 상괘가 이변간(離變艮)했으니 대축으로 상괘 간문(艮門) 안에 건금(乾金)의 상이 있고 크게 머물다는 뜻이다. 변괘가 마치 담벽에 걸려있는 앞치마 옷의 상이 돼 그 옷 안에 있다. 따라서 수표는 아직 집안에 있고 벽에 걸린 옷 속에 있다'고 말했다. 에이프런 앞치마의 작은 주머니에서 찾았다.

대유괘 육오의 효사는 '궐부교여 위여, 길'(厥孚交如 威如, 吉)이다. 즉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위엄이 있어야 길하다'는 뜻이다.

오효는 지존의 자리이다. 양위에 음효가 있으니 중용의 덕성을 갖춘 온화한 제왕으로서 오양과 진심어린 성신(誠信)의 교류를 통해 통치하고 있으나 양위에 유순 겸손한 음효이니 위엄을 갖추면 더욱 길하다.

육오는 성괘주(成卦主)로 믿음을 가지고 대유의 세상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영속적으로 보유해 가려고 하면 아래의 힘세고 현명한 현인 양효(陽爻)를 등용해서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 현인이 바로 친비(親比)의 구사이고 정응(正應)인 구이다.**

특히 육오는 유순중정(柔順中正)의 유약한 음효의 군위이기 때문에 양효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들과 잘 교제해 교제를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신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교여위여'(交如威如)라 말했다.

상전에서 '교여위여길'(交如威如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육오가 천하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다스려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래의 현인에게 교섭을 구하러 가면 아래의 현인들은 믿음에 감복해 맹세를 하게 된다. 또한 유중(柔中)의 군위이기 때문에 위엄을 갖춰야 아래의 현인 신하들이 얕보지 않아 길하다고 말한다.

육오는 외괘 이화(離火)의 주효이고 문명지상(文明之象)으로 대유의 세상을 오랫동안 통치하고자 하는 군왕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주역은 상경의 둔괘에서 시작해 어려운 시기를 걸쳐 일단 대유괘에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달성한 목표를 영구토록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통치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효사가 바로 대유괘 육오**이다. 이때는 대유의 세상이니 부드러움과 권위를 동시에 펴나가면 번성한다. 이성과 시험에 특히 길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기이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육오〈〈※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오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마땅히 기미를 알아서 물러서라(宜知幾而退/의지기이퇴). 선비는 마땅히 좋은 기회를 타서 나아가라(宜乘機而進/의승기이진). 서속은 때를 봐서 움직여라. 단 가벼이 보아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방종하면 불가하니 그러하면 화를 취한다(宜相時而動 但不可輕慢驕縱而取禍/의상시이동 단불가경만교종이취화)〉〉를 얻으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아랫사람과 교제를 두텁게 하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신라의 선덕여왕의 시대와 같으니 부드러움과 권위로 다스리면 길하다. 건괘(乾卦)는 인군(人君)괘로 만인이 우러러 공경하는 것인데, 이화가 변해 건괘가 됐으니 인군과 같은 공경을 받는 시기이다.

현재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믿어 우대해 쓰고 상하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는 등으로 위엄을 갖춘다면 길을 얻는다.

사업, 지망 등은 믿음으로 교제하고 아랫사람의 강점을 인정 대우하면서 권위로써 올바르게 추진해가면 이뤄진다. 전업보다는 현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혼인은 상대 여자가 기가 센 부유한 사람이며 올바른 상대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때가 오길 기다려야 한다. 잉태는 유산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다리는 사람은 늦게 오고 가출인은 돌아오나 여자는 남자를 상대하는 직업전선에 나가 있다. 분실물은 서쪽 창가나 높은 장롱 등에 들어가 있고 집 밖에서 잃어버린 것은 찾기 힘들다. 병은 가슴부위로 폐결핵, 폐렴 등이고 육충괘가 돼 위험하다.

또 다른 '실점예'로 'Y대학에 진학한 모인의 자제가 전공외로 통계프로그램을 복수전공하고자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길흉 여하'에 대한 문점, 육변서로 득괘해 '대유(大有) 오효동'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이 자제는 성품이 유순 온화한 가운데 공명정대해 모든 선배 및 동료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아 향후 동아리회를 이끌어 가면서 5년 이내에 통계프로그램 분야에서 제일가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니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차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육변서에서는 특히 변괘를 중요시 하는데, 건괘 오효에서 용이 하늘을 나는 비룡재천(飛龍在天)의 최고의 자리이다.

대유괘 상구의 효사는 '자천우지, 길 무불리'(自天祐之, 吉 无不利)이다. 즉, '하늘의 도움이 있고 신들로부터 축복이 있으니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상효는 상괘의 중(中)을 지나 대유괘의 끝자리이다. 음위에 양효가 있는 항룡(亢龍)의 자리로 위태롭다. 그러나 육오 군주와 친비해 유순중용한 군주의 성신(誠信)의 덕성으로 상구도 자신의 양강(陽剛)한 성정을 억제하고 육오를 섬기게 된다. 이로써 상구도 겸손과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군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니 하늘로부터 복이 내리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상효에 이르렀으니 대유괘의 끝이다. 대유의 중천에 떠있는 해가 가울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유가 극성(極盛)한 때로서 궁극의 실상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이러한 실상을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고 해서 '자천우지'(自天祐之)라는 효사로 표현했다. 이를 상전에서는 '대유상길'(大有上吉)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는 선을 쌓고 덕을 쌓아 하늘이 돕는 때이니 천하의 사업 등이 성공하는 때이다. 대유의 절정에 다다랐으니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운이 불처럼 타 오르는 때이므로 오히려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상구〈〈※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상구를 만나면 관에 있어서 직에 나아가고(在官進職/재관진직), 선비는 성명한다(在士成名/재사성명). 상인은 존상의 비호를 득하고 농가는 업이 진척된다(常人得尊上之庇 農家進業/상인득존상지비 농가진업/庇 덮을, 보호할, 의탁할 비)〉〉를 얻으면, 운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신뢰를 얻어 행복이 가득하며 생각지 못한 행운이 있다. 대유괘의 상구는 부잣집의 할아버지요, 부자 회사의 회장자리이다. 그러나 요행(僥倖)을 바라고 급진(急進)하면 좌절한다.

상구를 만난 자의 인물됨은 현명하게 가득찬 영(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허(虛)해 넘치지 않고 훌륭한 겸손과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군자의 모습이다. 사업, 지망 등은 성실하고 올바르면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아 통달한다. 취직, 전업 등도 선배, 동료, 부모의 덕으로 이뤄진다. 상거래에서 교섭, 담판 등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화평책(和平策)을 강구하면 이뤄진다.

혼인은 예쁘고 기가 센 상대로 성혼(成婚)이 되고 잉태는 무사하며 상당히 원기가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 기다리는 사람과 가출인은 불현 듯 나타나며 분실물은 높은 곳이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견된다. 병은 두통, 흉통, 토역(吐逆) 등의 증상이 있고 중증(重症)으로 재기불능일 수 있다.

'실점예'로 '모 배우 지망생의 향후 길흉 여하'에 대한 문점을 받고 득괘해 '대유(大有) 상효동'를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상괘 이화가 진뢰로 변해 대유지대장(大有之大壯)이니 앞으로 TV, 브라운관, 전파방송 등 분야에서 크게 대성할 것이다. 그 까닭은 본괘인 대유는 창문이 뚫린 사이로 빛, 밝음이 비치는 천창개명지상(穿窓開明之象)이기 때문에 TV, 브라운관 등을 의미하고, 지괘인 대장은 상괘가 진뢰이니 하늘에서 전기, 전파가 멀리 울려 퍼지는 상이 있기 때문이다.

효사에서도 자천우지(自天祐之)라 했으니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 동효가 상효변(上爻變)이니 바로 이달부터 방송사로부터 희소식이 있고 운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역시 방송사로부터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명리사주학,역경(매주토,일오전)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